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 상승선 택

上昇線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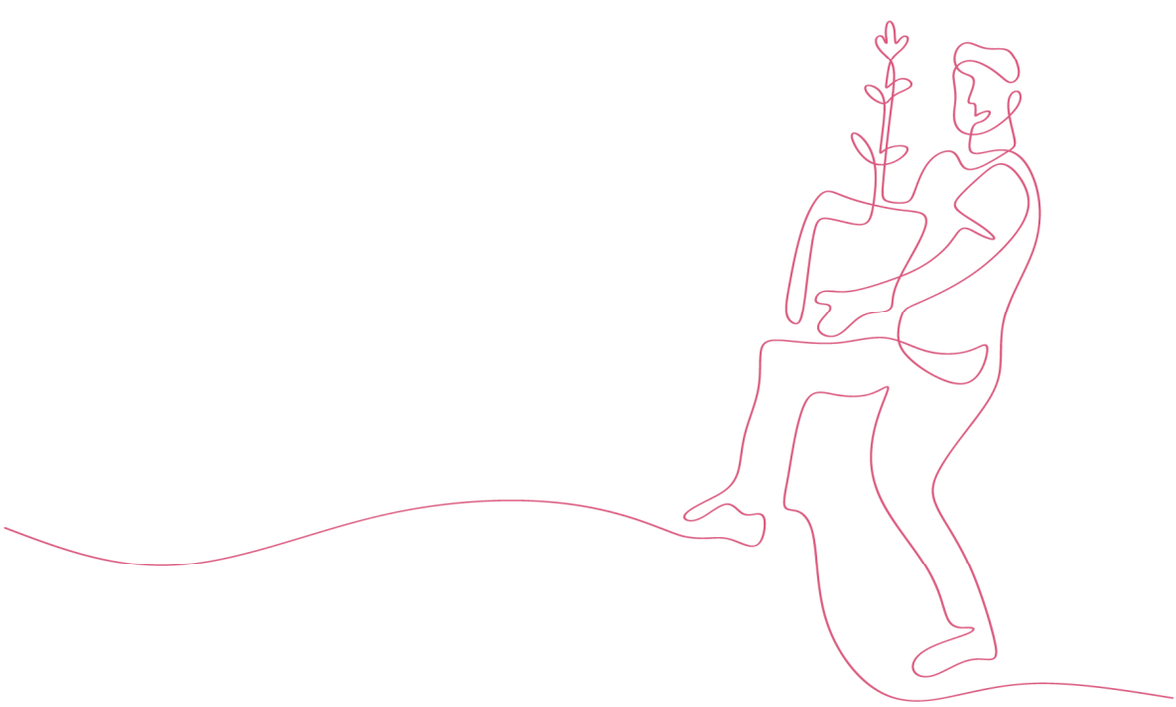
5-4

상상국어 임팩트 원

상상 이승모 상승선

上昇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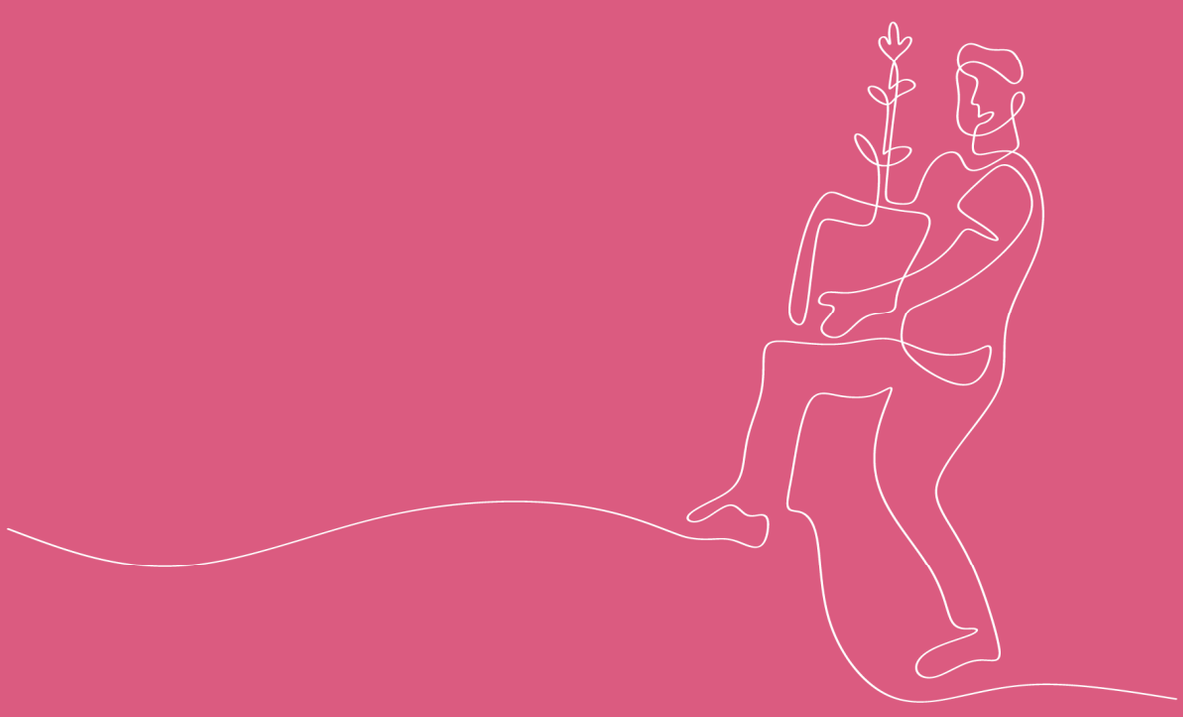
상상, 이승모T와 함께하는
성적 상승의 길



5-4

上昇線

상모택
이승선



5-4

[상상 모의고사 임팩트 원 - 상승선]

시즌 5 제4차 모의고사

[선별 세트]
[22~27]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권혁웅, 파문, 김유정, 길



임팩트 원 해설지 활용법

'임팩트 원'은 '상상'과 '이승모T'가 생각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유의미한 세트, 내지는 되짚어볼 만한 세트를 선별한 것입니다. '상상' 역시 사설이기에, 전 문항을 모두 기출처럼 분석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가져가라는 의도로 만든 것입니다. 즉 모의고사를 풀고, 나름의 오답을 한 이후, 가볍게 읽어보면서 가져갈 것들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임팩트 원 해설지는 총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실전)

- 쉽게 말해 제가 실전에서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풀었던 방식과 사고를 위주로 설명합니다. 실전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설명하기에, 해설지의 사고와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냥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푼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듯합니다.~~(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잘 읽겠지요?)~~ 특히 본인이 국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여기서 얻어갈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02 |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사후적 학습)

- 실전과 사후적 학습은 항상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후적으로 공부할 때 챙겨갈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연계 학습부터, 지문을 읽는 방식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실전에서 이걸 어떻게 해?'라고 받아들이시면 이건 해설지의 의도를 왜곡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전에서 가능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꼭 사후적으로 공부하면 추후 학습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쓴 해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03 | 임팩트 원은 해설 강의 역시 상상 국어 유튜브에 제공됩니다.

해설 강의와 겹치는 내용이 있겠으나, 해설 강의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이 해설지에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해설 강의는 간결하게 필요한 것들을 집중해서 말하는 성격이라면, 이것은 얻어갈 것을 싹 다 털어간다는 생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04 | 해설의 가독성과 재미를 위해 약간의 드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관성이 아닌 정성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01 | '나'는 '이'렇게 '풀'었다

안녕하세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시간이 점점 빠르게 흐름을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년 내내 열심히 하는 건 힘들어도, 두 달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는 지금 이 두 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국어 시험 보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수능 국어도 마지막 지문 남았을 때 몇 분 남는지가 중요하고, 결국 마지막 세트를 어떻게 풀었느냐가 시험 전체를 결정하죠. 마지막 세트를 날려 풀었다면 사실 계속 쫓기면서 풀었을 테니 잘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대략 60-70일 사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든,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은 제 취향으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절대 지나갈 수 없는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라는 올해 연계 작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시입니다.(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해강을 보시면 되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 Best 5도 추천해 두었습니다만... 이왕 보신 김에 해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파문'이라는 쉽지 않은 낯선 현대시. 그리고 수필까지. 참고로 김유정이라는 작가의 실제 얘기가 담긴 수필인데요. 김유정이라는 작가가 되게 흥미로운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김유정의 작품을 많이 압니다. 기출에 출제가 됐든 유명하든 벌써 떠오르는 작품이 '동백꽃' 아시죠? "너 집에 이거 없지?" 감자를 내미는 점순이. 아시죠? 그리고 '봄봄', '만무방', '금 따는 콩밭', '땍' 등등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김유정이라는 작가가 이 모든 작품을 2년에 걸쳐 썼다는 걸 아시는지요. 한마디로 천재입니다. 1937년에 돌아가셨는데 1935년에 등단하셨으니까. 대단하죠. 2년 동안 30여 개의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이한 것들도 많죠.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요절하셨습니다만, 병명은 폐결핵과 치루...ㅠㅠㅠㅠㅠ 박록주라는 유부녀 기생을 스토킹 수준으로 따라 다닌 것... 친구는 이상... 등등 참 별난 작가입니다. 그럼에도 독보적인 자기 작품 세계를 구축한 그런 작가죠. (가) 시는 제가 좋아하는 시고, (다) 수필 작가인 김유정은 흥미롭고. 이 와중에 (나) 시는 쉽지 않고. 제가 선택을 안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보기〉부터 읽든, 지문부터 읽든 그것은 본인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보기〉의 내용이 친절한 것 같으니, 〈보기〉를 보겠습니다.

> 시는 현실의 이면에 대해 통찰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임을 노래한다. (가)와 (나)는 부재하는 대상을 향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부재의 흔적을 통해 이별한 대상과 관련된 경험을 감각적으로 제시한다. (가)에서 비어 있는 '여백'은 주체로 하여금 세속의 번민을 떨쳐 내게 함으로써 내적 충만을 이루게 하는 대상으로, (나)에서 주변으로 동그랗게 퍼져 가는 '파문' 사이의 빈 공간은 상대의 내면을 헤아려 보려는 주체의 시도를 이끌어 내는 대상으로 묘사된다.

맥락 잡아야죠. 두 시는 모두 이별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깔려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연계니까 그렇다치고, (나) 읽을 때 일단 무조건 이별한 대상에 대한 그리움! 이라는 맥락을 가지고 읽고 풀어야 하는 겁니다. 〈보기〉부터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보기〉를 나중에 읽더라도, (나) 시를 실전에서 완벽히 해석하는 건 쉽지 않으니, 〈보기〉 읽으면서 아! 그런 시였구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기〉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주면 얘는 잡고 읽으면 좋습니다.

여백 = 내적 충만을 이루게 하는 대상

파문 사이의 빈 공간 = 상대의 내면을 헤아려 보려는 주체의 시도를 이끌어 내는 대상

잡고 읽으면 조금 더 선명해지기는 하겠지요. 바로 지문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연계를 끝내보죠.

(가)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궁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제목부터 이미 끝나는 시입니다. 모든 사라지는 것(소멸)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생성).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소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겠지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무덤가에 화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인지하는 거죠. 어머니가 여백을 남겼다! 사실 여백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으나, 어머니 무덤가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추억을 떠올리는 화자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무덤가에 있으면 모든 세속의 잡스러운 번민들이 다 사라지나 봅니다.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둥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여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직접적으로 화자의 깨달음이 제시됩니다. 결국 소멸 뒤에 다른 생성이 온다는 인식이죠. 굳이 얘기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남는다. 최소한 여백이라도 남는다. 즉 여백이 생긴다는 인식입니다.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스러진 뒤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 아래 네가 앉아 있는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연입니다. 드라이하게 일단 연계 설명하면, 나도 너의 여백으로 남고 싶다! 이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여백이 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는데,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언제 느꼈냐면, 할머니 장례 때 이걸 느꼈어요. 그때 제 딸이 9개월 아기였거든요. 손님들이 좀 가시고 그 넓은 장례식장에 아이가 영정 앞 바닥에 엎드려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랑 와이프랑 가면 얘 혼자 남을텐데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요.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가신 분을 추모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 제 딸이 대입되면서,

그때 이 시가 진짜 많이 떠올랐어요. 제가 부모로서 느끼는 이 시의 마지막 연의 의미는 사실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내가 혹시 먼저 가더라도 너무 슬퍼하지마. 늘 네 옆에 여백으로 남아있을 거야."라는 말 같아요.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

(나)
오래전 사람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어느 집 좁은 처마 아래서 비를 그어 보라, 파문
부재와 부재 사이에서 당신 발목 아래 피어나는
작은 동그라미를 바라보라
당신이 걸어온 동그란 행복 안에서
당신은 늘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 젖었을 것인데
그 사람은 당신과 늘 반대편 세상이 젖었을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만. 오래전 사람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 그리움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비를 그어보라는 말은 사실 잘 모르실 겁니다. 비를 피하여 그치기를 기다려보라는 정도의 뜻일텐데.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해석이 안 되어도 차분히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사람이 그리우면 빗방울 떨어질 때 생기는 파문을 바라보라.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에서 우산 같이 쓰는 장면을 연상하고 있습니다.(혹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다면 아마 더 연상이 잘 되지 싶은데. 보통 남친 한쪽 어깨가 젖곤 하죠.)

이제 빗살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어떤 간격을 만들어 놓았는지 궁금하다면
어느 집 처마 아래 서 보라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촘촘히 꽂히는
저 부재에 주파수를 맞춰 보라
그러면 당신은 오래된 라디오처럼 잡음이 많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파문

이번엔 어떤 간격입니다. 그 간격을 알고 싶은가봐요. 그럼 이때 간격이 무엇일까. 시에 대한 경험치가 있거나, 보기를 먼저 읽은 학생이라면 간격? 이별인가? 할 수 있겠습니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중요한 거면 선지에서 연결해줍니다. 그냥 차분히 읽어봐요. 보여야 되는 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촘촘히 꽂히는 저 부재에 주파수를 맞춰보라'는 표현입니다. 왜요? 앞이랑 정확히 대비되거든요.
부재와 부재 사이에서 당신 발목 아래 피어나는
작은 동그라미를 바라보라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촘촘히 꽂히는
저 부재에 주파수를 맞춰 보라
보이시죠? 즉 앞 상황과 뒷 상황은 대비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아련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나보다 하면서 시가 끝나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시를 아니까, 다 아는 채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시험 때 이 시를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차분히 읽어보자는 기준 선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권혁웅, 「파문」 –

(다) 수필은 어렵지 않아서 딱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만 읽을게요. 어차피 상황은 간단합니다. 한 청년이 김유정을 긁었어요. 근데 긁힐만 하죠. 사실 이 수필은 김유정의 실화이기에... 아픈 거 참고 소설 쓰고 있는 사람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얼른 걸작을 쓰셔야지요."는 선 넘은 거 맞죠. 그리고 실제로 긁혀서 얘기합니다. "너보다 오래 살 지도 몰라. 그러니 부주의하지 말고 성실히 살아."라고 받아친 거죠.

요즘에 나는 헤매던 그 길을 바로 들었다. 다시 말하면 전일 잃은 줄로 알고 헤매고 있던 나는 요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나를 위하여 따로이 한 길이 옆에 놓여 있음을 알았다. 그 길이 얼마나 멀는지 나는 그걸 모른다. 다만 한 가지 내가 그 길을 완전히 걷고 날 그날까지는 나의 몸과 생명이 결코 꺾임이 없을 것을 굳게 굳게 믿는 바이다.

이게 주제죠. 결국 돌아오는 가을을 넘기기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그 이후 세 번째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매던 길을 바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완전히 걸을 때까지 나의 의지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며 생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유정 작가는 요절했지요. 그럼에도 그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으니, 그 의지가 헛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22.

시간 아끼기 좋긴 한데, 바로 손가락 걸기는 학생 입장에서 무서울 순 있죠.

① (가)는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을 변주하여 화자의 인식이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둥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여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이것만 확인해도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② (나)는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③ (다)는 의인화의 방식을 통해 사물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여 세태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 맥락. 그냥 그런 작품이 아닙니다. 순삭해야죠. (나)에 화자의 태도 변화가 어디 있으며, (다)는 그냥 사물에 역동성을 부여할 만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가)든 (나)든 세태에 대한 비판과는 관련이 없고요.

⑤ (나)와 (다)는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이것도 그냥 실전에서는 그냥 그런 작품이 아니지 않나? 해도 되지만, 그래도 세밀하게 따진다면 (다)의 경우, 한 청년과 대화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은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청년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실전에서 그냥 그런 작품 아니야~ 하고 쳐버리긴 했습니다.

23.

선지 딱 세 개만 보겠습니다.

① ㉠은 '나'가 '적송밭'에서 '말씀보다 큰 여백'을 바라보며 성찰하는 시간이다.

- 성찰이라는 말이 거슬리면 안 됩니다. 성찰은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다 성찰입니다. 화자는 석양 무렵 어머니를 떠올리며, 돌아가셨으나 여백을 남겨두셨다는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곧 소멸이 무엇인가를 남긴다, 내지는 생성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므로 맞는 선지입니다.

③ ㉢은 화자가 '당신'에게 '동그란 행복 안'에 있던 시절과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사유해 볼 것을 권유하는 시간이다.

- 시를 이래서 차분히 읽어야 합니다. 결국 아까 잡았던 대비죠. 부재 사이의 동그라미냐, 동그라미 사이의 부재냐를 통해 충분히 대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④ ㉣은 '나'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해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품게 되는 시간이다.~~

- 보자마자 이상해야 합니다. 일단 '나'가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뒤는 청년에게 굵힌 김유정이 대응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다 틀린 선지입니다.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도 없지만, 스스로에 대해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품는 시간도 아니죠.

24.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답 선지가 선명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를 뭉개거나 〈보기〉를 뭉개면 답 선지가 꽤나 그럴듯해집니다. 발췌독할 때도 지문 의미 단위 정독해야 합니다. 선지 세 개만 보겠습니다.

② (나)에서 '빗살'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이별로 인해 주체와 대상 간에 발생한 거리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군.

- 우리가 낯선 현대시를 100% 해석할 수는 없으나, 이렇게 선지로 출제자가 나름의 해석을 해주면 이것이 적절한지 정도는 따져달라는 게 결국 실전에서 요구하는 수준일 겁니다. 결국 여기서 물어보는 건 간격 = 이별이냐죠. 시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간격을 만들어 놓음 = 그 사람과의 이별. 이게 파악이 됐을 수 있죠. 그럼 당연한 선지가 되는 거고, 내가 읽을 땐 몰랐지만, 선지에서 던져주니까. 아 맞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는지를 스스로 점검해보시라는 겁니다.

③ (나)에서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의 빈 공간에 '주파수'를 맞추어 보는 것은, 현재 함께하지 않은 대상의 내면을 헤아려 봄으로써 그 대상을 이해하려는 행위이군.

- 지문을 돌아갑니다. 주파수를 맞추어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소리를 잡음이 있겠으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대상의 내면을 헤아려 보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대상을 이해하려는 행위라는 워딩이 거슬릴 수 있으나, 일단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맞겠지? 정도 하는 거고, 얘가 끝내 거슬리면 일단 판단을 보류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⑤ (가)의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와 (나)의 '잡음'이 많은 '그 사람의 목소리'는, 부재하는 대상과 관련된 주체의 경험을 감각적으로 제시한 것이군.

- 뭉개면 안 보이죠. 꽤 그럴 듯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연계 공부를 한 우리들로서는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서울에서 묻혀온 온갖 잔소리는 엄마가 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즉 부재하는 대상과 관련된 주체의 경험과는 무관합니다. 답은 5입니다.

25.

답이 선명하기도 하지만, 오답 선지를 소거하는 편이 더 선명할 겁니다. 답은 2입니다.

② '작은 동그라미를 바라보라'에는 '발목 아래'에 생겨난 현상이 과거의 기억을 상기하는 매개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 비가 내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에서 우산을 같이 쓰는 것 같은 그런 기억이 환기됩니다.

① '비를 그어 보라'에는 일상적 경험에 몰두하다 보면 대상의 '소식'에 대한 관심이 무뎌질 것이란 인식이 담겨 있군.

③ '젖었을 것인데'에는 '반대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인식이 담겨 있군.

④ '어느 집 처마 아래 서 보라'에는 '파문'을 바라보며 지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자 하는 인식이 담겨 있군.

⑤ '들을 수 있을 것이다'에는 '오래된 라디오'의 소리처럼 상대의 생소한 면모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담겨 있군.

- 대상의 소식에 대한 관심이 무뎌질 것이라면 이렇게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시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맥락으로 깔린 시입니다. 당연히 지나간 인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자 하는 것도 아니겠지요. 이렇게 1, 4가 지워집니다. 상대의 생소한 면모를 발견하는 것은 이 시와 아예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 5를 지웁니다. 그나마 3이 따질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이별한 상황이 아니라, 같이 있을 때 행복할 때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배려가 부족했다는 3도 틀렸죠. 오히려 서로 배려하는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빠른 소거도 괜찮습니다.

26.

빠른 소거가 도움이 됩니다. ⓐ를 기준으로 1, 3, 5를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를 기준으로 4를 지웁니다. 이렇게 풀면 얘도 순삭입니다.

27.

이 문제 역시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① 청년의 '충고'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님을 깨닫고 '모욕'을 느끼고 있군.

- 지문 돌아가서 확인하면, '진정에서 우러나온 충고가 아니면 모욕을 느끼는 게 나의 버릇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충고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② 청년이 건넨 '충고'의 의도가 '자기 자신'을 높임으로써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군.

- '남을 충고함으로써 뒤로 자기 자신을 높이고, 거기에 어떤 만족을 느끼는 그런 종류의 청춘'이라고 청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③ 청년의 '충고'를 불쾌히 여기며 ~~'좀 더 오래' 살 궁리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군.~~

- 청년에게 긁혀서 '성한 그대보다 좀 더 오래 살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 자체와도 관련이 없거니와, 애초에 좀 더 오래 살 궁리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④ 청년의 '충고'에 대해 앞일을 예측할 수 없음을 들어 그에게 '성실히' 살라고 하며 냉소하고 있군.

⑤ 청년의 '충고'에 화를 참지 못하고 대응한 자신에 대해 '너도 어지간히 사람은 버렸구나'라며 자조하고 있군.

- 청년한테 긁혀서 화를 냈고요. 성실히 살라고 냉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지 못한 자신을 자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최고의 해설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함께 흘러가다보면 내년 겨울엔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만 알고 싶은 강의에서 누구나 알고 싶은 강의가 될 때까지.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승모입니다.

上昇線

상상 이승선 모택

이 책의 저작권은 (주)이매진C&E의 소유이며,
허락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상상국어평가연구소